

# 서양 고대 후기 라틴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소리와 문자론

- Vox와 Littera를 중심으로 -

장 지 연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1. 서론

고대 라틴어 문법학은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언어학습과 동시에 익히게 되는 문법용어들을 통해 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언어 학습에서는 음운론에 입각한 설명보다는 구체적인 발성연습이 중요시된다. 또 학습대상이 되는 언어의 발성에 대해 학술적인 논의를 하는 맥락에서도 현대적인 분석방법과 물리적인 도구들을 동원한 보다 세분화되고 기술적인 서술이 주를 이룬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문명권의 언어이론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라틴어 문법학전통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음운론적 논의는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이 상황을 고대 인도의 빠

주제어: 소리, 문자, 쓰기, 읽기 고대 라틴어 문법학 전통  
speech-sound, letter, writing, reading, ancient Latin grammatical tradition

니니 전통이나 그 이전부터 있어 왔던 인도의 문법학 전통과 비교해 보면 실감할 수 있는 차이는 상당히 크다. 인도 고전어인 산스크리트어(Sanskrit)를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제시되는 문자의 나열 순서는 정확한 음운론적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전에서의 문자와 그 문자들이 나타내는 소리들의 나열순서는 발성위치에 따른 배열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sup>1)</sup> 이에 반해 고대 라틴어 문법학의 소리에 대한 논의는 개별 소리의 조음 방법이나 위치에 대한 서술 보다는 음절의 장단, 음보(metrical feet) 등을 포함하여 운율의 기본 요소를 다루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과연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서는 음운론적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또는 로빈스(Robins)의 주장처럼 상대적 취약성을 보이고 있는지에이다.<sup>2)</sup> 그리고 현대적 관점에서 라틴어 문법학의 음운론 논의를 실패라고 단정하기에 앞서 라틴어 음운론이 왜 그러한 양상으로 발달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필자는 본 논문에서 라틴어 음운론의 발달 양상에 대한 연구의 첫 번째 단계로 vox와 littera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서양 고대 후기 라틴어 문법학의 소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라틴어 문법학에서 소리에 대한 논의는 작시법(metrics)에 대한 논의와 궁극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이것은 바로 라틴어 문법학의 구체적인 맥락이자 목표였던 문학과 수사학의 기초교육으로서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sup>3)</sup>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게 된다면 Latinitas에 대한 논의 자체가 바로 라틴어 음운론의 논

1) 인도 문법 전통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는 Cardona(1997), *Pāṇini - His Work and Its Traditions*. Vol. 1: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elhi: Motilal Banarsidass pp. 16-20과 강성용(2011), 『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 한길사, 124-132쪽 참조.

2) Robins(1966), "The development of the word class system of the European Grammatical Tradition", pp. 3-5 참조.

3) 라틴어 문법학이 지향했던 문학과 수사학의 기초 교육의 기능에 관한 논의는 장지연(2009), 「라틴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문학과 글쓰기 기초 교육」, 『수사학』 11집 참조.

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해명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라틴어 문법학 전통 내부에서 이루어진 *vox*, *littera*, *sonus*, *elementum* 등의 용어에 대한 기술적인 해명이 선결과제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러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의 내용과 맥락에 대한 해명이 본 논문의 주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라틴어 문법전통에서의 음운론적 논의에 대한 오해와 아쉬움은 사라지게 되리라 생각한다.

## 2. *Vox*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서 ‘소리’ 또는 (언어의) ‘음’을 논할 때에 사용된 단어는 *vox*, *sonus*, *littera*, *potestas*, *elementum* 등이다. *Vox*와 *sonus*는 ‘소리’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littera*, *potestas*, *elementum*은 각각의 사전적 정의와 관련되어 문법학 전통에서 ‘소리’라는 뜻을 얻게 된 단어들이다. *Vox*와 *sonus* 두 단어 모두 넓은 의미의 ‘소리’, 즉 모든 종류의 소리를 포괄하는 개념과 ‘사람이 내는 소리’, 즉 ‘말을 할 때에 내는 소리’라는 뜻을, 다시 말하자면 ‘분절음으로 이루어진 소리’(articulated sound)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일차적 의미, 즉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이 되는 개념이 어느 것인지에 있는데, *vox*의 일차적 의미는 ‘사람이 내는 소리’, 특히 ‘목소리 (또는 목소리가 가지고 있는 억양이나 강세, 음성 등등)’이고, *sonus*의 주요 의미는 ‘소리’, ‘소음’이다. *Vox*는 더 나아가 사람이 발성하는 소리라는 의미가 확장되어 ‘단어’, ‘말’, ‘문장’, ‘연설’ 등의 의미로도 사용되었고, 또한 악기가 내는 소리 등에도 적용이 되었다.<sup>4)</sup> 요약하자면, *vox*와 *sonus*는 일차 주요 함의에서는 의미

4) Lewis & Short, *A Latin Dictiona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1998), *s.v.*

가 다르지만 ‘사람의 발성’이라는 뜻과 ‘소리’의 뜻을 공유한다. *Littera*는 소리와 형태를 결합한 개념이고 *potestas*와 *elementum*은 넓은 의미의 ‘소리’라는 의미보다는 개별 ‘음’을 지칭하는 데에 사용된 단어들이며, 이 단어들의 의미와 용도는 3장 *Littera*에서 상세히 다루어 질 것이다.

## 2.1. Vox의 정의

라틴어 문법학에서 넓은 의미의 ‘소리’라는 개념으로 사용된 단어는 *sonus*가 아니라 *vox*이다. 고대 라틴어 문법학의 대표적 장르인 ‘학교문법’<sup>5)</sup> 문법서들은 *vox*에 대한 논의로 시작하는데,<sup>6)</sup> 로마의 대표적 문법학자 도나투스(*Donatus*)의<sup>7)</sup> 예를 들어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서 사용된 *vox*의 정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vox*, *s.v.* *sonus*와 *Oxford Latin Dictionary*(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1985), *s.v.* *vox*와 *s.v.* *sonus* 참조.

- 5) 고대에 사용되었던 여러 종류의 라틴어 문법서 중에서 제일 널리 사용되었던 문법서 종류로 소리와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1부, 단어, 즉 품사를 다루는 2부, 표현 기법을 다루는 3부로 구성된다. *Vox*는 1부의 첫 번째 장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이다. Karl Barwick에 의하여 ‘학교문법’(*Schulgrammatik*)이라는 용어로 통칭되기 시작한 이 장르의 특성에 관하여는 Law(1997), *Grammar and Grammarians in the Early Middle Ag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p. 130과 Law(2003),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Europe: From Plato to 16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65-70 참조.
- 6) ‘학교문법’ 문법서의 1부에서 다루어지는 항목은 여섯 개로, 1. *vox*(소리) 2. *littera*(문자) 3. *syllaba*(음절) 4. *pes*(운율) 5. *tonis*(강세) 6. *positura*(꽃어 읽기, 구두점)의 순서로 다루어진다.
- 7) 기원 후 4세기 중반 로마에서 활동한 문법학자. 그의 라틴어 문법서 *Ars Grammatica* (*Ars Maior*와 *Ars Minor*로 나뉜)는 라틴어 문법학의 대표적 저서로 당대뿐만 아니라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에도 큰 인기를 누렸다. 도나투스의 문법서는 독창적인 문법 이론을 제시한 것보다는 당대에 널리 통용되고 있던 라틴어 문법 이론을 체계적으로, 그리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과 5세기 이후 꾸준히 생산된 그의 저서에 대한 주석 문법서들이 유럽 문법학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는 점에서 라틴어 문법학사에서, 더 나아가 유럽 언어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Vox est aer ictus sensibilis auditu, quantum in ipso est. omnis vox aut articulata est aut confusa. articulata est quae litteris comprehendi potest, confusa quae scribi non potest(Donatus: 367).

소리는<sup>8)</sup> 청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딪혀진 공기로, 그것이 그 안에 있는 정도만큼 느낄 수 있는<sup>9)</sup> 것이다. 모든 소리는 나누어진<sup>10)</sup> 것이거나 나누어지지 않은<sup>11)</sup> 것이다. 나누어진 소리는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고,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는 (문자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 정의는 비단 도나투스뿐만 아니라 도나투스의 당대인 4세기부터 그 후로도 몇 백년간 계속하여 라틴어 문법서에서 거의 일률적으로 사용

- 8) 이 정의에서 vox는, 곧이어 설명되겠지만, ‘발성’이나 ‘발성된 음’, ‘말’ 보다는 넓은 의미의 ‘소리’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9) ‘부딪힌 공기가 청각 안에 있는 만큼’의 의미로, 공기가 부딪히는 강도에 따라 소리의 크고 작음이 결정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10) *Articulata*: *articulata*는 *articulo* 동사의 과거분사로 이 동사는 ‘(어떤 대상을) 개별 구성 요소나 연결 부분 별로 나누다’라는 뜻을, 소리와 관련하여서는 ‘사람이 또박 또박 끊어서 소리를 내다’, 즉 ‘분명하게 말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articulata*는 ‘또박 또박 끊어서 소리가 난’, ‘분명한’, ‘(음이) 구별 가능한’이라는 뜻이다. *Articulata*는 ‘분절된’이라고 번역 가능하지만, 현대 언어학 용어 ‘분절음’이 조음(*articulation*)의 측면에서 사용되고 있는 반면 라틴어 문법학에서는 조음보다는 쓰기와 관련되어 설명되고 있기 때문에, 의미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나누어진’이라고 번역하였다.
- Articulo*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 명사 *articulus*는 ‘신체의 관절’, ‘사지’, ‘부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articulo*와 *articulus*의 연관성은 (3장에서 설명되겠지만) 몇몇 라틴어 문법학자의 저술에서 *articulata*라는 개념을 쓰기와 연결시켜서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한다.
- 11) *Confusa*: *confusa*는 이러한 문법학적 맥락에서 적절한 번역어를 찾기 어려운 단어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섞여있는’이다. 라틴어 문법학에서 소리와 관련하여서는 *articulata*의 반대 개념이며 개별적으로 나뉘어 한 개의 문자로 표시될 수 없는 소리를 의미한다. 우리말로 ‘섞여 있는’이라고 번역했을 때에 ‘개별 개체들이 한 군데에 섞여 있는’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미의 모호함을 피하기 위해 ‘나누어지지 않은’이라 번역하였다.

된 정의인데, 고·중세 라틴어 문법학자들이 음운론적 논의에서 일반적인 ‘소리’라는 개념으로 *sonus*가 아닌 ‘사람의 소리’를 주요 의미로 가지고 있는 *vox*를 사용했다는 점은 흥미롭다. 몇몇 문법학자들이<sup>12)</sup> *vox*와 *sonus*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대 후기 라틴어 문법학자 중에 넓은 의미의 소리를 의미하는 대표 용어로 *sonus*를 사용하는 학자는 없다. ‘소리’에 관한 장에서 *sonus*를 자주 사용하는 편인 프로부스(Probus)도 “*vox sive sonus*”(vox 또는 *sonus*) 식의 표현에서 *sonus*를 사용할 뿐, *vox*를 동반하지 않고 *sonus*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고대 라틴어 문법학 전통에서 *vox*가 모든 종류의 소리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폼페이우스(Pompeius)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소리가 나는 것은 무엇이던지 소리라 불린다”(vox dicitur quidquid sonare potest)([Sergius]: 519)라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모든 *sonus*는 *vox*라 불린다”(omnis *sonus* *vox* dicitur)(Pompeius: 99)라고 기록한다. 더 나아가 *sonus*를 *vox*의 한 종류로 설명하는 이론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디오메데스(Diomedes)는<sup>13)</sup> 그의 문법서 *Ars Grammatica*에서 *vox*의 기능을 세 가지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기술한다. 그 세 가지는 *eloquium*(말), *tinnitus*(울리는 소리), *sonus*(소리)로 디오메데스의 설명에 따르면 *eloquium*은 사람의 발성을 표현하는 기호로 듣는 이에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이고, *tinnitus*는 악기처럼 만들어진 도구가 내는 소리이며, *sonus*는 물체가 부딪혀서 내는 소리이다.<sup>14)</sup> 이와 같이

12) 예를 들어 4세기에 로마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법학자 프로부스(Probus)와 5세기에 북아프리카에서 활동한 폼페이우스(Pompeius)가 있다. Probus, *Instituta Artium*, GL IV, p. 47과 Pompeius, *Commentum Artis Donati*, GL V, p. 99 참조.

13) 4세기 후반부 또는 5세기 초에 활동한 문법학자.

14) unde quidam vocis tria officia designant, eloquium, tinnitum, sonum. eloquium est humanae pronuntiationis expressa significatio facilem mentibus efficiens intellectum; tinnitus est fabricatae materiae inlisis tenui sono auditione acuens; sonus est corporalis conlisis repentinum auribus inferens fragorem.

sonus를 vox의 하위 개념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당대 라틴어 문법학의 전통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고 얼마만큼 공유된 입장이었는지는 다른 텍스트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알 수는 없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vox가 모든 소리를 총칭하는 개념으로만 사용되었고 개별 음을 지칭하는 데에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sonus는 vox의 동의어로 언급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빈번히 개별 음을 논하는 맥락에서 음운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 2.2. Articulata vox

고대 라틴어 문법학 전통에서 ‘소리’의 총칭으로 sonus가 아닌 vox를 선택한 것보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소리가 문자와 연결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인용한 도나투스 정의에서 보이듯이 articulata vox는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으로, confusa vox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설명된다. 소리를 설명하는 데에 문자가 개입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것인데, 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우선은 고대 라틴어 문법학자들이 어떤 소리를 문자로 표현될 수 있다고 인식하였으며 어떤 소리들을 그럴 수 없는 소리라고 생각하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도나투스처럼 소리를 articulata vox와 confusa vox로 나누면서 그 차이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프로부스의 설명을 보자.

---

그러하여 어떤 이들은 vox의 기능을 세 가지, 즉 eloquium, tinnitus, sonus로 설명한다. eloquium은 사람의 발성이 표현되는 기호로 듣는 이의 마음에 의미를 쉽게 전달하는 것이다; tinnitus는 만들어진 물질의 부딪힘으로 약한 소리로 청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sonus는 물체의 부딪힘으로 귀에 감각스러운 부딪힘(부딪히는 소리)을 유발하는 것이다(Diomedes, *Ars Grammatica*, GL I, p. 420).

articulata est, qua homines locuntur et litteris comprehendi potest, ut puta ‘scribe, Cicero’, ‘Vergili, lege’ et cetera talia. confusa vero aut animalium aut inanimalium est, quae litteris comprehendi non potest. [...] est et confusa vox sive sonus hominum, quae litteris comprehendi non potest, ut puta oris risus vel sibilatus, pectoris mugitus et cetera talia.(Probus: 47)

나누어진 소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사용하여 말을 하는 것이고,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scribe, Cicero’(키케로여, 쓰시오!), ‘Vergili, lege’(베르길리우스여, 읽으시오!) 등등.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는 동물의 소리나 무생물의 소리이고, 문자로 표현 될 수 없는 것이다. [...]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에는 사람의 소리이면서 문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도 속하는데, 예를 들면 입으로 내는 웃음소리나 입으로 내는 바람 소리, 가슴으로 내는 (한숨) 소리 등등이다.

프로부스의 설명에 의하면 articulata에 속하는 유일한 소리는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내는 소리이다. 사람이 내는 소리 중에서도 웃음소리나 한숨을 쉬는 소리 등은 동물의 소리와 무생물의 소리와 함께 confusa에 속하는 소리로 분류된다. 동물 소리의 예로 프로부스는 말의 울음소리, 개가 짖는 소리, 맹수가 포효하는 소리, 뱀이 내는 소리, 새의 노래 소리 등을, 무생물의 소리의 예로는 심벌즈의 울림, 채찍 소리, 파도 소리, 폐허가 무너지며 내는 소리, 피리 소리 등을 든다.<sup>15)</sup> 그런데 주의할 점은 동물 소리나 악기 소리, 또는 사람의 한숨 소리도 사람이 말을 할 때에 사용하면 그러한 소리를 표현하는 의성어나 감탄사가 되어 articulata vox에 속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articulata vox는 그것이 어떤 소리를 표현하건 간에 사람이 말을 하기 위하여 내는 소리이고, 그 외의 모든

15) animalium est ut puta equorum hinnitus, rabies canum, rugitus ferarum, serpentum sibilus, avium cantus et cetera talia; inanimalium autem est ut puta cymbalorum tinnitus, flagellorum strepitus, undarum pulsus, ruinae casus, fistulae auditus et cetera talia(Probus, *Instituta Artium*, GL IV. p. 47).

소리는 *confusa vox*이다. 프로부스처럼 *articulata vox*와 *confusa vox*의 차이를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내는 소리인지 아닌지로 구별하는 입장은 4~5세기 라틴어 문법서에 흔히 나타나는 주장이다. 디오메데스는 사람의 말은 합리적인 또는 ‘이성적인’(rationalis)이라는 수식어로, 동물의 소리 등을 포함하는 *confusa vox*는 ‘비이성적인’(inrationalis)이라는 수식어로 설명하기도 한다.<sup>16)</sup>

도나투스의 전통과는 많은 점에서 다른 입장을 보이는, 고대 말기의 대표적 문법학자 프리스키아누스(Priscianus)는<sup>17)</sup> 소리를 좀 더 상세히 구분한다. 그 역시 ‘나누어진 소리’, ‘문자화’의 개념 등을 사용하지만, 도나투스와 도나투스의 문법학 전통에 있는 문법학자들의 설명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측면이 두드러진다. 프리스키아누스는 그의 저서 *Institutiones Grammaticae*에서 소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Vocis autem differentiae sunt quattuor: articulata, inarticulata, literata,<sup>18)</sup> illiterata. articulata est, quae coartata, hoc est copulata cum aliquo sensu mentis eius, qui loquitur, profertur. inarticulata est contraria, quae a nullo affectu

16) articulata est rationalis hominum loquellis explanata. eadem litteralis vel scriptilis appellatur, quia litteris comprehendi potest. confusa est inrationalis vel inscriptilis, simplici vocis sono animalium effecta, quae scribi non potest.

나누어진 소리는 이성적인 것으로 사람의 말이 표현된 것이다. 이것은 ‘문자의’ 또는 ‘쓰일 수 있는’ 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왜냐하면 문자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는 비이성적이거나 또는 쓸 수 없는 것으로, 동물 소리의 단순한 소리로 만들어 진 것이며 쓰일 수 없다(Diomedes, *Ars Grammatica*, GL I, p. 420).

이 인용문에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17) 북아프리카 출신의 문법학자로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에서 활동했다. 도나투스와 쌍벽을 이루는 라틴어 문법학자로 그의 저서들은 중세의 라틴어 문법 이론 발전에 큰 영향을 끼쳤다.

18) 본 논문에서 인용하는 프리스키아누스 텍스트의 편집자는 *littera*와 *littera*의 복합어와 파생어에서 *littera*라는 철자를 사용하였기에 그대로 인용함을 밝힌다.

proficiscitur mentis. literata est, quae scribi potest, illiterata, quae scribi non potest. inveniuntur igitur quaedam voces articulatae, quae possunt scribi et intellegi, ut: Arma virumque cano, quaedam, quae non possunt scribi, intelleguntur tamen, ut sibili hominum et gemitus: hae enim voces, quamvis sensum aliquem significant proferentis eas, scribi tamen non possunt. aliae autem sunt, quae quamvis scribantur, tamen inarticulatae dicuntur, cum nihil significant, ut ‘coax’, ‘cra’. aliae vero sunt inarticulatae et illiteratae, quae nec scribi possunt nec intellegi, ut crepitus, mugitus et similia. scire autem debemus, quod has quattuor species vocum perficiunt quattuor superiores differentiae generaliter voci accidentes, binae per singulas invicem coeuntes(Priscianus: 5-6).

소리에는 네 가지 차별적 특성이 있다: 나누어진 것, 나누어지지 않은 것, 문자화되는 것, 문자화되지 않는 것. 나누어진 소리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에 담겨있는 의미와 묶여서, 즉, 연결되어, 발생되는 것이다.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는, 이와는 반대로, 아무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이 (즉,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없이) 발생되는 것이다. 문자화 되는 소리는 글로 쓰일 수 있는 것이고, 문자화되지 않는 소리는 글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나누어진 소리 중의 어떤 것들은 (문자로) 쓰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rma virumque cano’(‘나는 전쟁과 영웅을 노래한다’)처럼. 반면에 나누어진 소리 중의 어떤 것들은 쓰일 수는 없어도 이해될 수는 있다. 예를 들면 사람이 내는 바람 소리나 한숨 소리처럼. 왜냐하면 이 소리들은 그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기는 해도 글로 쓰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쓰일 수는 있지만 아무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라 불리는 것들이 있다. 예를 들면 coax, cra처럼. 또 나누어지지도 않고 문자화되지도 않는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들은 쓰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다. 예를 들면 벽이 갈라지는 소리, 동물의 울음소리 등. 우리는 이상에서 언급한 소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네 개의 차별적 특성이 두 개씩 조합되어 소리의 네 가지 종을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나투스가 소리를 *articulata*와 *confusa*로 나누고 *articulata*는 문자화 될 수 있고 *confusa*는 문자화 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프리스키아누스는 소리가 가지는 네 가지의 차별적 특성(*differentia*)을 언급한다. 첫 번째 차별적 특성인 *articulata*는 의미를 가지고 발성되는 것이고, 두 번째 *inarticulata*는 정신적 작용이 없이, 즉 의미 없이 나는 소리이며, 세 번째 차별성인 *litterata*는 문자로 쓰일 수 있는 것, 네 번째 *illitterata*는 문자로 쓰일 수 없는 것이다. 결국 *articulata*와 *inarticulata*의 차이는 내포하는 또는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가 된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차별성은 두 개씩 결합되어 소리의 네 가지 종(*species*), *articulata et litterata*, *articulata et illitterata*, *inarticulata et litterata*, *inarticulata et illitterata*를 형성한다. 이 네 종의 성질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articulata et litterata*: 쓰일 수 있고 이해될 수 있는 것  
예: “Arma virumque cano”
2. *articulata et illitterata*: 쓰일 수 없지만 이해될 수 있는 것  
예: 한숨 소리
3. *inarticulata et litterata*: 쓰일 수 있지만 아무 의미도 나타내지 않는 것  
예: coax, cra
4. *inarticulata et illitterata*: 쓰일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  
예: 동물 소리

프리스키아누스에게 있어서 소리를 *articulata*와 *inarticulata*로 나누는 기준은 그 소리가 이해될 수 있는지, 바꾸어 말하면 그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닌지이며, 문자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는 상관 없는 것이다. *articulata*와 *inarticulata* 둘 다 문자로 기록될 수도 있고, 기록될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도나투스의 *confusa* 개념과 프리스키아누

스의 *inarticulata*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 모든 *confusa vox*는 문자로 쓰일 수 없지만 *inarticulata*는 쓰일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기 때문이다. 도나투스를 비롯하여 4~6세기에 활동한 대부분의 작가들이 소리를 단순히 사람의 말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구분하고, 각각을 쓰일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에 등치시킨 반면에, 프리스키아누스는 소리의 분류에 ‘의미’라는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고, 그것과 문자화의 가능성을 연결시켜 소리를 보다 다층적으로 분류하였다.<sup>19)</sup>

### 3. Littera

#### 3.1. Littera의 정의와 속성

다시 도나투스의 정의로 시작하자면, *littera*는 다음과 같다.

*Littera est pars minima vocis articulatae*(Donatus: 367).

*Littera*는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다.

이 정의의 *littera*를 ‘문자’로 번역하여 해석한다면, ‘문자는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다’가 되면서 ‘문자가 소리’라는 등식이나 또는 ‘문자가 소리를 형성하는 한 성분’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문자를 소리와 연결하여 정의하는 이 다소 낯선 주장은 *littera*라는 라틴어 단어가 가진 다층적 의미의 맥락을 이해할 때에야 비로소 이해될 수 있다. 라틴어 문

19) 사람의 말을 의미와 연결하여 설명하는 입장으로 드물게 프리스키아누스 이전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각주 16번에서 인용한 디오메데스의 설명에 나오는 출처 미상의 *eloquium*에 대한 설명이다. 각주 16번 참조.

법학에서 전통적으로 *littera*는 ‘이름’(nomen), ‘형태’(figura), ‘음가’(potestas)라는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취급된다.<sup>20)</sup> 어떠한 *littera*를 논할 때에, 예로 A라는 *littera*를 들면, ‘아’라는 A의 이름과 세 개의 선으로 된 A의 형태, 그리고 A가 나타내는 음 [a]를 포괄하여 하나의 A라는 개념으로 논하는 것이다. 물론 문자라는 것이 소리(potestas)를 나타내는 기호(figura)이기는 하지만,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서 *littera*는 figura와 potestas가 합쳐져서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potestas도 물리적인 음 자체보다는 그 음을 지칭하는 추상적 개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littera*는 현대의 ‘문자’와는 다른 개념이다.<sup>21)</sup> 따라서 도나투스

20) *accidunt uni cuique litterae tria, nomen, figura, potestas. quaeritur enim, quid vocetur littera, quae figura sit, quid possit.*

모든 문자에는 세 가지 속성, 즉, 이름, 형태, 음가가 있다. 왜냐하면 문자가 어떻게 불리는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의 질문이 던져지기 때문이다(Donatus, *Ars Grammatica*, GL IV, p. 368).

- 21) i) Potestas는 개별적 음을 논할 때는 사용이 되지 않고, *littera*의 속성을 논하는 맥락에서만 나타나는 개념이다. 물리적 실체로서의 발화된 음을 위해서는 라틴어 문법학에서는 *elementum*이나 *sonus*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특히 반모음, 자음, 음절 등을 논하는 맥락에서 *naturalis sonus*(‘자연음’) 또는 단독으로 *sonus*를 사용하여 그 문자가 나타내는 실질적인 음을 가리킨다.
- ii) 따라서 라틴어 문법학에서 사용된 *littera*의 개념을 ‘문자’로 번역하는 것은 *littera*가 내포하는 속성을 아우르지 못한다는 점에서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그러나 일단은 ‘문자’ 이외에는 다른 마땅한 번역어가 없고, 라틴어에서 ‘문자’에 제일 근접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littera*라는 점에서 다소 혼돈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자’라는 번역어를 선택하였다. 단 *littera*를 논하는 3장에서는 논의의 정확성을 위하여 ‘문자’라는 번역어를 사용하지 않고 라틴어 원어를 그대로 사용하였음을 밝힌다.
- iii) 쓰인 것, 문자화된 것 등 물리적 행동으로서 ‘쓰다’의 결과물을 표현할 때에 라틴어는 *littera*가 아닌, ‘쓰다’라는 뜻을 가진 *scribo*동사에서 파생된 *scripta*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그리스어에서 문자를 의미하는 단어인 *grámmata*가 ‘쓰다’라는 뜻의 동사 *gráphō*의 파생형인 것에 반해, 라틴어에서 문자라는 개념으로 *scripta*를 사용하지 않고 ‘쓰다’의 의미가 없는 어근을 가진 *littera*를 사용하는 것은 흥미로운 점이다.

“Littera는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다”라는 정의는 littera의 시각적 속성과 청각적 속성을 동시에 인지할 때에 성립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나누어진 소리는 문자로 표현될 수 있다”(articulata est quae litteris comprehendi potest)는 도나투스(Doanatus)의 설명에서 ‘문자로 표현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사실상 형태와 소리 그리고 그 둘의 조합을 통한 의미의 전달 까지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난다.

### 3.2. Littera와 elementum

Littera가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라는 점은 littera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대 말 문법학자들은 littera의 이 측면에 주목한다. 카리시우스(Charisius)와 프로부스(Probus)는 littera의 정의에서 도나투스가 사용한 ‘제일 작은 부분’(pars minima)이라는 표현 대신에 elementum이라는<sup>22)</sup> 단어를 사용하여 “littera는 나누어진 소리의 요소(elementum)이다.”(Charisius: 4; Probus: 48)라고 기술한다.<sup>23)</sup> Elementum은 디오메데스(Diomedes)의 설명에 의하면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힘 또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재료(물질)”(elementum est minima vis et indivisibilis materia vocis articulatae)이며(Diomedes: 421), 이 설명은 littera가 어원적으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이라는 의미를 가진 ‘원소’(atomos)라고 불리기도 한다는 세르기우스(Sergius)의 서술과<sup>24)</sup> 맥락을 같이 한다.

22) elementum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문법 용어 stoikheíon에 대한 설명과 이 용어와 elementum이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는 요소’라는 의미로 다른 학문 분야에서 사용된 것에 대하여는 Lepschy ed., *History of Linguistics*, Vol. 2, p. 10 참조.

23) Littera est elementum vocis articulatae. elementum est uniuscuiusque rei initium, a quo sumitur incrementum et in quod resolvitur.

Littera는 나누어진 소리의 요소이다. 요소는 각 실체의 시작으로, 그것으로부터 증가가 일어나고 또 그것으로 해체된다.(Charisius, *Ars Grammatica*, p. 4; Probus, *Instituta Artium*, p. 48)

그런데, 디오메데스의 “제일 작은 힘”(minima vis)라는 표현에 나타나듯이, elementum이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라는 점에서 littera와 같은 개념으로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 단어는 littera의 속성 중의 하나인 potestas, 즉 littera가 나타내는 소리의 개념으로 간주되기 시작한다. 이와 더불어 elementum이 potestas와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면서 littera의 기능을 오직 형태적 기능(figura)으로 제한하려는 시도가 간헐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프리스키아누스는 littera는 elementum을 표시하는 기호라 설명하면서 littera와 elementum을 혼동하는 잘못을 지적하기도 한다.

Litera igitur est nota elementi et velut imago quaedam vocis literatae, quae cognoscitur ex qualitate et quantitate figurae linearum. hoc ergo interest inter elementa et literas, quod elementa proprie dicuntur ipsae pronuntiationes, notae autem earum literae. abusive tamen et elementa pro literis et literae pro elementis vocantur(Priscianus: 6-7).

그러므로 littera는 elementum의 기호 또는 문자화된 소리의 어떠한 형상으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선의 모양과 수에 의하여 인식된다. 따라서 elementum과 littera에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elementum은 정확하게는 발음 그 자체이고 littera는 그것의 기호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잘못하여 littera를 elementum이라 부르기도 하고 elementum을 littera라 부르기도 한다.

24) ideo dixit partem minimam esse litteram vocis articulatae, quod, cum omnis oratio solvatur in verba, verba denuo solvantur in syllabas, rursum syllabae solvantur in litteras, littera sola non habet quo solvatur. ideo a philosophis atomos dicitur.

littera는 나누어진 소리의 제일 작은 부분이라고 그가(*sc.* Donatus) 말하였다. 왜냐하면, 모든 문장은 단어로 나누어지고, 단어는 다시 음절로 나누어지고, 음절은 다시 문자로 나누어지는데, 문자는 더 이상 나누어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littera는) 철학자들에 의하여 원소라 불려진다(Sergius, *De Littera, de Syllaba, de Pedibus, de Accentibus, de Distinctione*, GL IV, p. 475).

디오메데스 역시 *elementum*은 소리로, *littera*는 그것을 나타내는 형태로 규정하면서 프리스키아누스와 같은 입장을 취한다.<sup>25)</sup>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작가 모두 모음과 자음, 음절 등 음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현상을 논의할 때에는 *vocales litterae*(‘모음’), *consonantes litterae*(‘자음’) 등의 용어에서 *littera*를 다시 소리의 속성을 포함한 전통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그리하여 *elementum*의 사용 방식은 개별 작가마다 다를 뿐 아니라, 한 작가가 문맥에 따라 다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는 현상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개별 음을 의미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sonus*와 *elementum*의 혼용 역시 빈번히 일어난다.

### 3.3. *Littera*의 어원

나누어진 소리(*articulata vox*)와 문자(*littera*)의 연결 고리를 5~6세기에 활동한 도나투스 문법 주석자들은 *articulata*와 *articulus*(‘관절’)의 어원에 서 찾기도 한다. 다음은 고대 말에 생산된 도나투스 주석서 중에서 제일 방대하고 중세 전반부까지 계속 인기를 누렸던 폼페이우스의 *Commentum Artis Donati*에 나오는 *articulata*에 대한 설명이다.

*articulata est vox quae potest scribi; ut ecce hoc ipsum quod dixi potest scribi. ideo articulata dicta est, quod potest articulo scribi. artus enim dicimus membra maiora, articulos minora membra in omni corpore. nihil brevis digitis. idcirco articulata vox dicta est, quod potest articulis comprehendi. digitis autem tenemus calamos. ideo ergo dicitur vox articulata, quod potest articulis scribi. confusa illa dicitur vox, quae non potest articulo comprehendi, ut puta mugitus boum, digitorum sonitus(Pompeius: 99).*

25) Diomedes, *Ars Grammatica*, GL I, p. 421.

나누어진(*articulata*) 소리는 쓰일 수 있는 것이다. “쓰일 수 있다”라고 내가 말한 바로 이 문장처럼. 나누어진 소리는 관절(*articulus*)로 쓸 수 있기 때문에 *articulata*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체의 큰 관절을 *artus*라고 부르고, 작은 관절을 *articulus*라 부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손가락보다 짧은 관절은 없다. 따라서 *articulata vox*(나누어진 소리)는 *articulus*(관절, 즉 손가락)에 의하여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리는 것이다. 우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잡는다. 따라서 (그것은) *articulata vox*라 불린다. 관절을 사용하여 쓸 수 있기 때문에. 나누어지지 않은 소리(*confusa vox*)는 관절을 사용하여 문자로 표현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소의 울음소리나 손가락을 튀길 때 나는 소리처럼.

나누어진 소리(*articulata vox*)가 *articulus*를 사용하여 기록되기 때문에 *articulata*라 불린다는<sup>26)</sup> 설명에서 우리는 소리와 문자를 관련시켜 설명하려는 고대 라틴어 문법학자들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은 *littera*의 어원적 설명에서 더 분명히 드러나는데, *littera*라는 단어의 어원은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Littera dicta est quasi legitera, eo quod quasi legentibus iter ad legendum ostendat vel quod scripta deleri possit*(Sergius: 475).

*Littera*는 마치 *legitera*처럼 발음되는데, 왜냐하면 읽는 이들에게 읽는 (*legendum*) 길(*iter*)을 보여주기 때문에, 또는 쓰인 것이 지워질 수 있기<sup>27)</sup>

- 
- 26) i) 이처럼 같은 어원을 가지거나 비슷한 소리를 가진 단어를 사용하여 한 단어의 어원을 설명하는 것은 고대의 대표적인 어원 설명 방식이다.  
 ii) *articulata*와 *articulus*를 연관시키는 이 설명은 고대 말기에서 중세 전반부에 이르는 라틴어 문법서에서 빈번히 나타난다.
- 27) *Tabula*와 관련된 언급. *Tabula*는 고대 일상생활에서 제일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필기도구로 흙이 파진 나무판에 밀랍을 씌운 것이다. 여기에 철필로 글을 썼는데,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글은 긁어서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글을 쓸 수 있었다. 인용된 문장은 *tabula*에 쓰인 글을 긁어서 지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인 *litura*를 상정하면

때문이다.

Littera를 *legendi iter*에서 유래한 듯이 보이는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는 단어인) *legitera*와 연결시켜 ‘읽는 이에게 읽는 길을 보여준다’고 설명하는 것은 억지로 끼워맞춘다는 인상을 주기는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명은 문자의 기능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글을 통하여 성취되는 다양한 사회적 기능이 소리와 문자를 다루는 데에 있어서 조차도 문법학자들의 염두에 자리잡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4. 맺음말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논의는 현대 언어학의 기준으로 보면 비과학적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대 문법학자들의 작업에 대한 평가는 그 작업이 생산된 문화적, 학술적 맥락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리(*vox*)와 문자(*littera*)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바, 소리와 문자는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그 관계의 연결고리는 많은 문법학자들이 인식하였고 또 프리스키아누스가 언급한 ‘의미’이다. 또한 이것은 도나투스 소리의 정의에서 보이듯이 소리를 발성의 측면이 아니라 청각적 측면(*sensibilis auditu*)에서 접근하는 방식과, 폼페이우스가 제시한 ‘문자가 읽는 이에게 읽는 길을 보여준다’

---

서 하는 설명이다.

cf. *Dicitur autem litera vel quasi legitera, quod legendi iter praebeat, vel a lituris, ut quibusdam placet, quod plerumque in ceratis tabulis antiqui scribere solebant.*

Littera는 읽는(*legendi*) 길(*iter*)을 보여주기 때문에, 마치 *legitera*처럼 발음된다. 또는, 몇몇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litura*(지우기)처럼 발음된다. 왜냐하면 옛날 사람들이 밀랍이 씌워진 서판에 글을 썼었기 때문이다(*Priscianus, Institutiones Grammaticae, GL II, p. 6*).

는 식의 설명에서 나타나는 구술과 청각(oral/aural)의 비중이 큰 고대 문화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읽기’라는 행위가 ‘소리내어 읽기’이던 시대에 읽는 것의 직접적 대상인 문자가 ‘소리’라는 성질을 내포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고대 라틴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문자의 소리적 측면에 대한 강조는 고대 문법학이 담지했던 문학과 수사학을 위한 기초 교육—정확한 문학 작품의 해석과 올바르게 말하기(poetarum enarratio et recte loquendi scientia)—이라는 기능에 의해 증폭되었다. 고대 라틴어 문법학의 대표적인 장르인 ‘학교문법’ 문법서는 1부 음운론, 2부 품사론, 3부 수사학적 표현기법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고, 이는 언어의 제일 작은 단위인 소리에서 시작하여 단어와 구문(표현기법)으로 나아가는 점층적 구조를 보여준다. 1부를 구성하고 있는 여섯 개의 장인 1. vox(소리) 2. littera(문자) 3. syllaba(음절) 4. pes(운율) 5. tonis(강세) 6. positura(끊어 읽기, 구두점)에서 라틴어의 개별 음, 즉 음운이 제일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부분은 2장 littera의 후반부인데 이 부분에서도 각각의 소리가 음절을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모음, 자음, 반모음으로 분류되는 정도이다. 음절을 다루는 3장에서는 모음의 원래 길이에 따라 결정되는 음절의 장단과 여러 음의 조합에서 그 조합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음절의 장단을 논함으로써 그 다음 장에서 다루어지는 운율에 대한 기초를 다진다. 1부에서 하나의 단어를 구성하는 세부 요소들에 대한 논의를 마친 후 2부 품사론에서 8개의 품사가 다루어지는데, 각 품사는 의미론적 기준에 따라 분류되고 설명된다. 각 품사에 대한 형태론적이고 구문론적인 설명보다는 단어가 전달하는 의미에 중점을 둔 품사론은 그 다음 단계로 의미의 효율적 전달에 중점을 두는 3부 수사학적 표현기법으로 이어진다. 고대 라틴어 문법서의 구조와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듯이 라틴어 문법학은 라틴어의 일상적 사용보다는 문학과 수사학의 견지에서 말과

표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축으로 하여 발전하였다. 따라서 소리와 문자에 대한 논의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음절(syllaba)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에서는 지면의 제약상 다루지 못하고, 소리와 문자에 대한 논의로 미흡하나마 고대 라틴어 문법학의 음운론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 나타나는 vox, littera, elementum, sonus, potestas와 같은 용어들의 혼용은 문법학자들의 개념의 혼동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 문법과 음운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 사용되면서 점차적으로 문법 용어로 선별되고 정착되어가는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비록 elementum과 potestas는 서양 문법학의 전통에서 문법용어로 자리잡지 못하였고 littera는 소리를 표현하는 기호의 개념으로 정착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syllaba(음절), consonantes(자음), vocales(모음), semivoocales(반모음), nominativus(주격) 등등의 용어들은 거의 이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고대에서 중세로 전달되고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현대의 문법용어로 의미의 축소 또는 변화를 거치면서 살아남은 단어들의 긴 역사에서 그러한 용어들의 발생초기의 의미와 용례를 접하고 이해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속해있는 학문적 배경의 역사를 더 잘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소리와 음운에 대한 논의는 고대 라틴어 문법학이 형성되기 이전에 이미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저술에서 발견되었고, 스토아 철학자들의 기호이론 역시 현대 학자들의 눈길을 끈다. 고대와 헬레니즘 시대의 철학자와 수사학자들의 소리와 음운에 대한 논의가 고대 문법학의 소리에 대한 논의의 형성에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문법학이 독립된 학문분과로 자리잡은 이후에 독자적인 논의의 발달을 성취하였으므로 본 논문에서 고대 철학 및 수사학과 관련된 논의는 생략하였다. 또한 고

대 라틴어 문법학이 고대 그리스어 문법학을 전거로 하여 탄생하기는 하였으나 유럽의 문법학과 언어학의 발전에 토대를 제공한 것은 라틴어 문법학, 특히 4세기에서 6세기에 걸쳐 생산되고 사용된 라틴어 문법학 논의인 까닭에 본 논문을 이 시대에 국한시켰음을 밝힌다.

고대 후기 라틴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논의는 다른 문화권에 서 발생한 음운론적 논의와 비교해 볼 때, 그리고 현대의 관점에서 분석을 할 때에 소리 자체에 대한 관찰과 설명에 있어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라틴어를 비롯한 제반 언어에서 나타나는 소리와 음운적 현상 자체에 대한 탐구보다는 소리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언어의 문학적, 수사학적 기능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라틴어 문법학의 주요 목표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고대 라틴어 문법학에 나타나는 음운론적 논의에 대한 보다 타당한 이해와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강성용(2011), 『빠니니 읽기: 인도 문법전통의 이해』, 한길사.
- 장지연(2011), 「Latinitas와 중세 초기 라틴어 문법학의 특성」, 『서양중세사 연구』 27.
- 장지연(2009), 「라틴어 문법서에 나타나는 문학과 글쓰기 기초 교육」, 『수사학』 11.
- Auroux, S.(ed.)(1992), *Histoire des idées linguistiques*, Vol. 2: *Le développement de la grammaire occidentale*, Liège: Mardaga.
- Cardona, Geroge(1997), *Pāṇini - His Work and Its Traditions*. Vol. 1: *Background and Introduction*. Delhi 1988 [2nd edition 1997, Delhi: Motilal Banarsidass].
- Crystal, David(2003), *A Dictionary of Linguistics and Phonetics*, 5th edition, Oxford: Blackwell.
- Law, V.(1997), *Grammar and Grammarians in the Early Middle Age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_\_\_\_\_ (2003),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Europe: From Plato to 160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epschy, G.(ed.)(1994), *History of Linguistics*, Vol. 2: *Classical and Medieval Linguistics*,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Lewis & Short(1998), *A Latin Dictiona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 Kaster, R. A.(1988), *Guardians of Language: The Grammarian and Society in Late Antiqu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Oxford Latin Dictionary*(198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reprint.
- Robins, R. H.(1966), “The development of the word class system of the European Grammatical Tradition”, *Foundations of Language* 2.
- Taylor, D. J.(ed.)(1987), *The History of Linguistics in the Classical Period*, Amsterdam: John Benjamins.
- Swiggers, A.(1997), *Histoire de la pensée linguistiqu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Vollgraff, W.(1949), “Elementum”, *Mnemosyne*, 4th ser. 2.

일차자료

- Alcuinus, *Dialogus Franconis et Saxonis de Octo Partibus Orationis*, *Patrologia Latina*, 101, cols.
- Charisius, Flavius Sospiter, *Ars Grammatica*, ed. by C. Barwick(Leipzig: Teubner, reprint. 1997).
- Diomedes, *Ars Grammatica*, *Grammatici Latini*, I.
- Donatus, *Ars Grammatica*, *Grammatici Latini*, IV.
- Grammatici Latini*, ed. by H. Keil, 8 vols. (Leipzig, 1857~1870).
- Isidorus, *Etymologiae sive Origines*, ed. by W. M. Lindsay, 2 vols.(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11).
- Iulianus Toletanus Episcopus, *Ars*, ed. by Maria A. H. Maestre Yenes(Toledo: Instituto Provincial de Investigaciones y Estudios Toledanos, 1973).
- Maurus, Terentianus, *De Litteris*, *Grammatici Latini*, VI.
- Pompeius, *Commentum Artis Donati*, *Grammatici Latini*, V.
- Priscianus, *Institutiones Grammaticae*, *Grammatici Latini*, II & III.
- Probus, *Instituta Artium*, *Grammatici Latini*, IV.
- [Probus], *De Ultimis Syllabis*, *Grammatici Latini*, IV.
- Sergius, *De Littera, de Syllaba, de Pedibus, de Accentibus, de Distinctione*, *Grammatici Latini*, IV.
- [Sergius], *Explanationes in Artem Donati*, *Grammatici Latini*, IV.
- Servius, *Commentarius in Artem Donati*, *Grammatici Latini*, IV.
- Victorinus, Marius, *Ars Grammatica*, *Grammatici Latini*, VI.
- Virgilius Maro Grammaticus, *Epitomae and Epistolae*, ed. by G. Polara(Naples: Liguori, 1979).

원고 접수일: 2011년 11월 3일  
심사 완료일: 2011년 11월 16일  
게재 확정일: 2011년 11월 24일

ABSTRACT

---

Speech-sound and Letter  
in Late Latin Grammatical Tradition

Jang, Jee Yeon

This article aims to provide a detailed exposition on the treatment of the speech-sound and letters in ancient Latin grammatical tradition and thereby to show the rationale of the mode of their explanation. In ancient Latin grammars, a letter is recognised as an entity which has three properties, i.e. name, figure, and sound. Donatus's definitions of *vox* and *littera* show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two concepts, of which the crucial link is 'meaning' as is clearly explained by Priscian. Moreover, the aural aspect of the speech-sound expressed in the definition of speech-sound and the etymological explanation of *littera* as *legendi iter* need to be understoo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oral/aural culture of the ancient period.

The emphasis placed on the oral aspect of the letter in the ancient Latin grammars reflects the function and the aim of the grammatical education in the period, namely the interpretation of the literature and speaking correctly. Accordingly, the treatment of the speech-sound and the letter

was developed with this literal and rhetorical orientation. The phonological treatment of the ancient Latin grammars needs to be considered and evaluated within this context.